본래 갖추어진 불성 되찾는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⑬ - 전주 참좋은 우리절

전주 '참좋은 우리절' 신도들이 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다.

개원 4년만에 4000여 신도 신행 활동

다라니 끊이지 않고 외우면 번뇌 안 일어

흔히 우리가 사는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 부른다. 몸으로 부딪혀 사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위주의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편해졌다' 고 한다. 수행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룻밤 사이에 불교관련 책과 동영상물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 세계의 불교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수행법도 안방에서 따라할 수 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허전함은 여전하다. 왜 일까?

9월 5일, 전주역 앞 상가건물 4층과 5층에 자리한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 cafe.daum.net/urijel)' 을 찾아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고자 했다.

이날은 마침 일요법회가 열리는 날이다. 오전 10시, 주지 회일스님의 주재로 <천수경> 독경이 시작됐다. 독경은 다라니 부분에 이르러 21번을 반복했다.

100여명의 재가불자가 함께하는 다라니는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도심 속으로 울려 퍼졌다.

얼마나 흘렀을까, 독경을 마치자 의식을 집전하던 스님들이 108참회에 들어갔다. 스님들의 오체투지는 마치 한분의 스님이 하는 것처럼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다. 다시 축원-유치-청사로 이어지는 법회는 태풍처럼 격하게 몰아치다가 숨죽이며 늦추어지더니 또다시 힘을 모아 법문으로까지 치닫았다.

"불교의 목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보리를 구함은 곧 수행이며 수행의 다른 말은 기도입니다. 흔히 복을 구걸하는 행위를 기도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업은 언젠가는 갚아야할 빚입니다. 기도는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도를 놓지지 않으면 매사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 긍극에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저잣거리 상가 40여평의 작은 공간으로 시작된 '참좋은 우리절' 은 개원 4년만에 1300세대 4000여명의 신도가 신행활동을 하는 수행도량으로 성장했다. 비결(?)은 바로 '기도' 였다.

법회가 끝나자 회일 스님에게 기도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들어봤다.

▲기도란 무엇인가

불교에서의 기도는 본래 갖춰있는 부처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복을 짓는 작복(作福)을 뜻한다. 부처님도 실명한 제자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여섯 가지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란 남에게 베풀며, 남을 가르치고, 억울함을 참고, 계를 가르치고, 중생을 보호하며,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왜 지금 기도인가

근래 들어 불자들도 공부를 한다면서 몸으로 하기보다 입이나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종교에도 파고든 것이다. 특히 기도가 그러하다. 몸으로 하는 기도일수록 돌아가고자 한다.

▲'참좋은 우리절' 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나

천수다라니를 강조한다. 재가불자가 이 시대에 쉽게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천수경>독경이고 천수경의 골수인 '다라니' 를 놓지 않도록 한다. 입에서 다라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번뇌가 스며들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 입, 행위를 다라니 기도에 묶어두면 순간순간이 당당한 삶이 된다.

물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 먼저 조석예불부터 챙겨보기를 권한다. 꼭 법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불을 하면 된다. 주변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라니를 독송하는 것으로 예불을 대신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일 예불을 챙기면서 조금씩 기도를 늘려가면 된다.

▲그것만으로는 개인 정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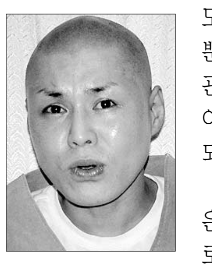
기도는 곧 수행이다. 또한 기도는 자기 닦음이자 회향이다. 개인적으로는 부처가 되고(上求菩提), 중생에게 회향(下化衆生)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로 나와 남이, 인간과 자연이 한 몸임을 자각하고 생명을 나눠야 한다.

우리절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자기 회향을 실천하고 있다. 조직을 갖춘 시스템 속에서 회향을 실천하는 것도 좋으나 스스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주위에는 우리의 힘과 생명을 필요로 하는 생명이 많기 때문이다.

글 · 사진/전주=이준엽 기자

기도를 방편으로 신바람나는 법회



▌회일 스님은 '참좋은 우리절' 은 '누구든 와서 기도 하라' 는 뜻에서 이름부터 편한 우리말을 선택했다.

주지 회일 스님(사진)은 1988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군종장교를 거쳐 서울 구룡사에서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이끌었으며 당시 어린이법회 수련회에 2000여명이 참석해 교계를 놀라게 했다. 구룡사 철야정진 중에는 기도가 끝나면 대중들이 박수를 치곤 했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스님의 기도에 모두가 감동한 것이다.

이때부터 출가자의 본분사는 '열심히 사는 것' 에 있다고 보고 '기도' 를 방편으로 수행과 포교를 시작했다.

스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 기도를 통해 '신바람나는 법회' 를 만들었다. 또한 재정은 물론 조직 등 사찰의 운영 일체를 신도회에 일임하고 있다. 스님은 오직 '기도와 포교' 만 이끌 뿐 그 이외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것도 여느 사찰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참좋은 우리절은 신도회 주관으로 삼천동에 대지 2000평, 지하1층 지상3층의 도량을 건립하고 있다. 내년 봄에 도량이 완성되면 기도회향을 실천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과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063)245-8027~9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4> 떡

운문 선사 "발우 속에 떡 몇개 있느냐" 묻고 납자의 답변 신통치 않자 "노파에게 물어라"

추석명절이다. 이럴 때는 떡이야기가 제격이다.

백결선생은 명절인데도 떡을 만들 쌀이 없는 부인을 위하여 거문고로 떡방아소리를 내주었다고 한다. 예술 한답시고 쌀독도 채워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지아비가 그 절박한 상황을 예술로 승화시켜 놓은 것이 '방아타령' 이다.

용담숭신 선사는 출가 전에 떡장수였다. 그래서 떡파는 노파가 덕산 스님을 용담 선사에게 안내해준 것일까?

동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지라 이미 서로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서 이름을 들었거나, 아니면 뒷날 그 회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나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설은 심증일 뿐이고, 세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운문 선사는 호떡뿐만 아니라 그냥 떡을 가지고도 많은 납자를 제접했다.

어느 날 공양을 하면서 떡을 먹다말고는 한 납자에게 물었다.

"발우 속에는 떡이 몇 개나 있으며, 떡 속에는 발우가 몇 개나 들었느냐?"

"??? 음~"

그리고는 납자가 알았다는 듯 떡을 번쩍 들어올리니 운문 선사가 말했다.

"차라리 노파에게 물어 보거라."

묻는 질문에 나름대로 떡을 들어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시원찮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떡장수 노파에도 안목이 미치지 못한 것을 질책한 것이다. <금강경>의 대가인 주금강(뒷날 덕산 스님)이 떡장수 노파에게 허기를 면하고자 떡을 달라고 하니 도리어 질문을 던진다.

물론 제대로 답변하면 떡을 그냥 주고 답변을 하지 못하면 돈을 줘도 떡을 팔지 않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이쯤 되면 노파가 아니라 납자를 제접하는 선사나 진배없다.

"금강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밝히시겠다(點心)는 것입니까?"

점심(點心)은 간단한 요깃거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점등(點燈)' 에서 보듯 '점' 은 '밝힌다' 는 의미도 있다. 물론 출출함에다가 점심시간이라는 의미를 중첩시키면서 마음을 밝힌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된 이중적인 질문이다.

어쨌거나 운문 선사의 '발우 속의 떡'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납자가 떡을 들어올린 것이 그 노파의 경지만도 못하다는 말이렸다.

운문 선사의 이런 점검방법은 다른 납자에게 또 떡을 들더니 그것을 가지고 말했다.

"나는 너에게 이 떡의 반을 나누어 줄까 한다."

그리고 난후 정작 주지는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당연히 그 납자가 의아하게 생각하고서 물었다.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운문 선사가 말했다.

"네가 썩은 나무등걸이나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儞打野榸)."

옳은 나무라야 소리가 날 텐데 썩은 나무를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다. 답변을 제대로 못한 까닭에 떡을 얻어 먹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공부를 완전히 마친 후 인가를 하면서 스승이 만들어 주는 떡을 파참재(罷參齋)라고 한다.

성철 선사가 파계사 성전암에서 법전 선사에게 파참재 떡을 해주겠다고 하니 "싫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단지 떡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수암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3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5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